

산업장관, 몽골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 및 유통·소비재 동반진출 지원

- 몽골 산업광물자원부와 하반기 「장관급 한-몽 희소금속협력위」 개최 합의
- 노브랜드 몽골 1호점 오픈식 참석, 유통·소비재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1. 한-몽 산업광물장관회의 (7.10, 09:00~10:00)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7월 10일(금) 울란바타르에서 건거르 담딘ням(Gongor Damdinnyam)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몽 핵심광물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지난 '23.2월에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MOU」를 기반으로 운영해 온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와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가 양국 간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광물자원 분야 기술, 인력,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몽골에서 생산된 텅스텐 정광이 국내로 공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업부 ODA 사업 '23~'27년 간 97.8억원 규모, 지질자원연구원(주관)·광해광업공단(참여)

** '26.6월 27톤 국내 공급 완료, 7월부터 공급량 확대 예정(50톤)

양측은 이번 정상방문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차관급으로 운영되던 한-몽 협력위를 양국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간 광물자원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 협력위 개최 계기에 우리 기업과 유관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MOU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 ▲협력위원회의 장관급 격상, ▲국장급 실무그룹 설치, ▲협력범위 확대(현지 1차 가공·분리·정제, 안정적 공급, 투자 협력, 협력센터 활용 등) 등

또한, 양측은 희소금속협력센터 ODA 사업이 2027년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센터를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연구·인력개발·기업교류 등 후속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정상방문을 계기로 민간·연구기관 간 핵심광물 탐사·연구부터 공급망 연계까지 폭넓은 협력성과*가 도출된 만큼, 기업 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 * ① 韓지질자원연구원 - 蒙광물석유청(MRPAM) 지질과학 협력 MOU
- ② 韓지질자원연구원 - 蒙국립지질조사소(NGS) 지질과학 협력 MOU
- ③ 韓포스코인터 - 蒙징기스칸 국부펀드 협력 MOU
- ④ 韓한화투자증권 - 蒙징기스칸 국부펀드 협력 MOU

<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 활용 협력 후속사업(안) >

- ① (공동연구, '26년~) 희토류·텅스텐·리튬 등 현지 광물 기술지원 및 현지화 협력 연구
- ② (인력개발, '26년~) 초청연수(2회), 현지연수(1회), 학위과정 통해 50人 교육목표
- ③ (기업교류, '26년~) 기업협의체(韓21개사+蒙24개사) 통한 정보 교류 및 사업 지원
- ④ (기술지도 ODA, '28년~) 몽골 희소금속 개발·생산 현장 애로기술 지도 사업 추진 검토

한편, 이번 장관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 활성화와 양국 상생을 위한 선결과제로 투명한 정보공유와 물류·운송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담딘ням 장관은 한국은 몽골의 자원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국민방문 계기에 격상된 한-몽 협력위가 하반기에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준비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 광물기업간담회 (7.10, 07:30~08:30)

김 장관은 산업광물장관회의에 앞서 이번 정상방문에 동행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LS, 한화투자증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코트라 등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관련 기업·기관 대표 등과 함께 광물자원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 기업·기관들은 몽골 진출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물류, 제도 등 애로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금일 장관회의와 희소금속협력위 등을 통해 관련 애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완료되는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 ODA 사업이 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 관련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3. 몽골 진출 유통매장 방문 및 유통·소비재 기업간담회 (7.10, 12:00~14:20)

김정관 장관은 한국 소비재 유통기업인 노브랜드의 몽골 1호점 오픈식에 참석하여, 음식과 생활 제품이 양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서로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개점한 노브랜드 1호점은 총 4,900종의 입점 상품 중 2,100여종을 한국 상품으로 구성하여 푸드·잡화를 비롯한 우리 소비재의 수출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이마트를 해외진출 유통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물류·마케팅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26~'28, 연간 약 471억원) : 매년 13개사 내외 선정

이어서 김 장관은 이마트,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몽골 진출 유통기업, 소비재 기업들과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기업·기관 : 이마트(유통), GS리테일(유통), BGF리테일(유통), 제이코스랩(뷰티), 궁전방(푸드), KOTRA,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참석 기업들은 몽골 진출 과정에서 겪는 물류, 관세·통관, 마케팅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으며, 김 장관은 “이번에 합의한 한-몽 유통물류 협력 MOU와 한-몽 정책회의를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국민방문을 계기로 원칙적 타결된 한-몽 CEPA를 통해 가공식품,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황에서,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우수한 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몽골 K-유통·소비재 캐리어*’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몽골 진출 대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 유통을 통한 소비재 수출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유통사를 수출 에이전트화하여 물류(KOTRA), 인증(시험인증원), 금융(무보 등), 지재권(지식재산보호원), 현지 파트너발굴(KOTRA·중진공), 상품발굴(업종별협회)을 일괄 지원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근용 (044-203-5680)
		담당자	서기관	문성용 (044-203-5684)
			사무관	신정미 (044-203-5673)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조근상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오세형 (044-203-4389)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장민재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246)
			사무관	윤가영 (044-203-5258)

